① 안/않

안: 짧은 부정에 사용.

동사 바로 앞에서 <안 해요>

<~~않 해요~~>는 존재하지 않음.

않: 긴 부정에 사용.

<지>를 동반 <하지 않아요>

<안>은 초간단, <-지 않>은 길고 받침도 겹받침이라 복잡.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혼동을 피해 표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한 방법.

② 든/던

든: '선택'의 개념. <하든(지) 말든(지)>

던: 과거의 일. <하던 일>

<얼마나 춥던지>

③ 왠/웬

왠: '왜인지'의 준말 '왠지'의 꼴로만 쓰임.

<왠지 모르게>

웬: 어쩐, 무슨, 어지간한. <웬일> <웬걸>

<웬만하면·웬만큼>

④ 낫:다/낳다/낮다

낫다: *1)* *동사*일 때 - 병이나 감기가 낫다: 건강해지다.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이 모호할 시, 예 1)처럼
'어간 + <는다>'가 성립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예 1) 무리하지 않아야 빨리 낫는다.
예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예 3) 감기가 다 나았어요.
예 4) 빨리 나으세요!

예 3)과 예 4)에서 보듯 'ㅅ' 탈락 현상이
이루어지나 '낳'이 되는 경우는 없음.

---

2) *형용사*일 때 - A 보다 B 가 낫다: A 보다 B 가 좋다.
'어간 + 는다' ~~A 보다 B 가 낫는다~~. 성립 안 됨.

낳다: 아이를 낳다 (출산하다)
문제를 낳다 (문제를 야기하다)

예) 그 부부는 쌍둥이를 낳았다.
예) 잘못된 정책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았다.

낮다: '높다'의 반대.

⑤ 들이다/드리다

들이다: 사람 또는 무엇을 안으로 들여 수용함.

예)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인다.

예)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

드리다: '주다'의 높임말.

예) 도와드릴까요?

예)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

⑥ 되/돼 <되 + 어>가 되면 돼, <되 + 어>가 안 되면 되.

되	+	어요	=	돼요	('되어요'의 줄임)
되었	+	어요	=	됐어요	('되었어요'의 줄임)
되었	+	습니다	=	됐습니다	('되었습니다'의 줄임)
되	+	어도	=	돼도	('되어도'의 줄임)
되	+	어야	=	돼야	('되어야'의 줄임)
되	+	ㅂ니다	=	됩니다	('~~되업니다~~' 성립 안 됨)
되	+	ㄴ다 =	=	된다	('~~되언다~~' 성립 안 됨)
되	+	고 =		되고	('~~되어고~~' 성립 안 됨)
되	+	는	=	되는	('~~되어는~~' 성립 안 됨)
되	+	지	=	되지	('~~되어지~~' 성립 안 됨)

⑦ 보다/뵈다/뵙다

보다 예) 내일 봐요! (주어: 우리)

뵈다: *1)* 주어가 *'우리'*일 때

예) 내일 봬요! ('내일 봐요!'보다 높임말)

1 인칭이 포함되는 청유형임에도 '우리'를 높임. 맞춤법은 <뵈+어요> 형태이기에 '~~뵈요~~'가 아닌 '봬요'.

2) 주어가 *'나'*일 때

예) 내일 뵐게요. (내가 상대를 높여 찾아 뵘)

뵙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주어: 나.

'내일 뵐게요'보다 정중한 표현)

---

⑧ 반듯이/반드시

반듯이 : 비뚤지 않고 바르게. (일자로 똑바로)

예) 천정을 보고 반듯이 (또는 반듯하게) 누웠다.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예)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⑨ 는데/는 데

는데: 문장과 문장을 잇는 연결 어미.

<는데> 뒤에 조사 '에'가 올 수 없음.

예) K 씨는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로 이사할 생각이다.

는 데: 는 + 데. ('데'는 의존 명사로서, 일·경우·것 등의 뜻)

<는 데> 뒤에 '에'가 와도 됨.

예) 의식주는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예) 머리 아픈 데(에) 먹는 약 좀 주세요!

예) 그가 그 일에 목을 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

⑩ 가르치다/가리키다

예) K 씨는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예) 시계가 열두 시를 가리킵니다.

---

⑪ 조목조목/~~요목조목~~

조목조목 따졌다. (= 하나하나 따짐)

'~~요목조목~~'은 없는 단어.

('요모조모' + '조목조목'이 '~~요목조목~~'으로 새롭게 탄생한 듯)

⑫ 숟가락의 '숟'은 받침이 'ㄷ'이고, 젓가락의 '젓'은 'ㅅ'인 이유.

숟가락: 가령 '한술 뜨다' 또는 '첫술에 배부르랴'라고 할 때, 이때 '술'은 숟가락이고, 이 '술'이 '숟'으로 됨.

젓가락: 숟가락과 젓가락을 일컫는 '수저'에서, 이때 젓가락에 해당하는 '저'에 '가락'이 붙으며 사이 시옷이 들어간 것.

---

⑬ 하십시오/~~하십시요~~

'하시다'의 명령형은 <하십시오> 또는 <하세요>
<~~하십시요~~>는 없음.
(어간 '하시'+명령형 종결 어미 'ㅂ시오'로 '하십시오' 또는
어간 '하시'+명령형 종결 어미 '어요'로
'하시어요' → '하셔요' →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또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또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또는	안녕히 주무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또는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십시오!	또는	건강하세요!

⑭ 이에요/예요

이에요 : 자음 뒤에서 <마틴이에요>

('이에'는 곧 '예'이므로 '마틴이예요'라고 하면 '마틴이이에요'라고 하는 게 됨)

예요: 모음 뒤에서 <토마스예요>

---

⑮ 이었어요/였어요

이었어요: 자음 뒤에서 <마틴이었어요>

('이었'은 곧 '였'이므로 '마틴이였어요'라고 하면 '마틴이이었어요'라고 하는 게 됨)

였어요: 모음 뒤에서 <토마스였어요>

---

⑯ 옳은/올바른

옳은: 맞는.

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올바른: 바람직한.

예) 올바른 사고를 하는 젊은이.

---

⑰ 그런데/그런대

그런데: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

그런대: <그런다고 해>의 줄인 말.

⑱ 유래/유례

유래 (由來): 근원, 시초, 뿌리.

예) 이 풍습은 어디서 유래됐을까?

유례 (類例): 예를 들만한 사례.

예) 일찌기 그런 유례가 없다.

---

⑲ 꼽다/꽂다

예)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예) 친구의 등에 칼을 꽂았다.(친구를 배신함)

예) 약자들에게 빨대를 꽂았다.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갑질하여 이익을 챙김)

---

⑳ 담그다/담다

김치를 담그다: 김치를 만들다

예) 김치를 담가요.
'~~김치를 담아요~~'가 아님.

김치를 담다: 김치를 그릇에 옮기다.

예) 김치를 담가서 통에 담아요.

㉑ 어이/어의

어이없다: 어처구니없다, 기가 차서 어안이 벙벙하다.

예)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어의 (語義): 말의 개념.

예) 어의가 변형된 낱말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㉒ 섞다/썩다/~~썪다~~

섞다: 혼합하다.

예) 소주와 맥주를 섞으면 소맥이 된다.

썩다: 상하다.

예) 단 걸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었다.

'~~썪다~~'는 없는 단어.

㉓ 짓:다/짖다

짓다: 만들다.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이름을 짓다 등등)

예) 이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짖다: (개가) 짖다.

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

㉔ 어폐/어패

어폐 (語弊): 언어의 폐단, 불합리성.

예) 말에 어폐가 있다.

어패 (魚貝): 생선·조개. '어패류 (魚貝類)' 꼴로 쓰임.

예) 신선한 어패류 고르는 법.

㉕ 처/쳐

처: '마구'라는 뜻의 접두사.

(처먹다 · 처마시다 · 처넣다 · 처바르다 · 처박히다 등)

예) 식당 주인인 욕쟁이 할머니는 손님에게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했다.

예) 아무렇게나 덕지덕지 처발라 놓은 시멘트.

쳐: 동사 <치다>의 어간 '치' + 어.

(쳐들어가다 · 쳐죽이다 · 쳐부수다 · 쳐내다 · 쳐들다 등)

예) (오징어 게임에서) 장덕수: 이새끼들 금고 있는 데를 쳐들어가는 거야.

예) 니가 고개를 쳐들고 노려보면 어쩔 건데?

㉖ 어떡해/~~어떻해~~

<어떡해>는 <어떻게 해>의 줄임.

'~~어떻해~~'는 존재하지 않음.

㉗ 치르다/~~치루다~~

예) 물건을 사고 값을 치렀다.

예) 다행히 날씨가 좋아 야외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었다.

㉘ 대로/데로

대로: <대로>가 한 묶음.

예)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걸었다.

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데로: <데> + <로>의 결합.

<데>는 곳·장소, <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

<데로>를 <데에>로 대체해도 문장이 됨.

예) 친구가 나를 재미있는 데로 데리고 갔다.

예) 조용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할까?

㉙ 너무/그렇게

예 1) A 는 한국인, B 는 한국 살이하는 외국인. 둘이 대화하는 상황을 가정.

Person A: 한국말을 너무 잘 하시네요.
(한국말을 몹시 잘한다는 의미로 칭찬함)

Person B: 아닙니다. 그렇게 잘 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잘 하지 않습니다~~)

예 2) 학창 시절 친구였던 두 사람이 사회에 나온 뒤, 몇 년만에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

Person A: 너, 너무 많이 변했다.
(사람이 지나치게 달라졌음)

Person B: 아냐, 나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
(~~아냐, 나 너무 많이 변하지 않았어~~)

㉚ 참석/참가/참여

참석: 예) 결혼식에 참석했다. (좌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워짐)

참가: 예) 오디션에 참가했다. (또는 공고 같은 경우,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 예) 사회 문제에 참여했다. (무엇에 관여한다는 추상적 개념)

㉛ 어렵겠다/어렵지만 해보겠다

어렵겠다: 부정적인 답변. '안 됨'을 상대에게 완곡하게 표현.

예) 부탁하신 일 어렵겠습니다.

(상대에게 화답하는 문장이 '어렵겠다'로 끝나면,
일이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는 것임)
형태소 '겠'의 용법 중 하나.
(안 됨을 통보하는 데에 있어, 약간 누그러뜨려 표현하는
것. 다른 완곡한 표현으로
'부탁하신 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음)

하지만 '어려워 보인다'는 의미일 때도 있음.

예) 이 시험 문제 어렵겠다.

(여기서 형태소 '겠'의 용법은 '추측')

어렵지만 해보겠다:

어렵다는 말 뒤에 다른 동사가 이어지므로
어렵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문장 끝의 동사
'해보겠다'에 방점이 찍힘.

예) 부탁하신 일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긍정적으로 답함.
문장 끝의 동사가 '해보겠다'로 약속이나 의지를 보여줌.
형태소 '겠'의 또다른 용법 중 하나.
이 경우 '해보겠습니다'를 '해볼게요'로 대체해도 됨)

㉜ 벌이다/벌리다

벌이다: 시작하다, 펼치다.

예) 일을 벌였으면 수습을 해야지.

벌리다: 간격을 넓히다.

예) 지하철의 쩍벌남.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남자)

㉝ 로서/로써

로서: '○○의 신분·지위·자격에 상응하게'라는 뜻이 통할 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

예) 부모된 도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예)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예)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로써: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라는 뜻이 통할 때.
그것이 수단이나 도구가 됨. 또는 기준이 되는 시간.

예) 그렇게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었다.

예) 투표소 수개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선거의 투명성이 보장되게 되었다.

예) 오늘로써 성인이 되었다.
<오늘로써>를 <오늘부로>로 대체해도 뜻이 통함.

㉞ 채/체

채: ‘ㄴ 채로 무엇을 하다’라는 것으로, 있는 상태 그대로 동작·행위가 전개될 때 사용.

예) 안경을 쓴 채(로) 잠이 들었다.

(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는 조사는 ‘로’)

체: 짐짓 그런 양 꾸미는 거짓 행동을 할 때 사용.

예) 어떤 동물들은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체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죽은 체>를 <죽은 척>으로 대신해도 됨.

(생략이 될 수도 있지만 올 수 있는 조사는 ‘을·를’.
‘죽은 체를 해서’ 또는 ‘죽은 척을 해서’)

㉟ 째

‘그대로 전부 다’라는 의미의 접미사. 앞 낱말과 붙여 씀.

예) 찌개를 끓여서 냄비째로 먹었다.
(그릇에 덜지 않고 그대로 먹음)

예) 식당을 통째 빌렸다.

예) 사과를 씻지도 않고 껍질째 먹었다.

㊱ 온/~~오는~~, ~~오던~~

온: *1)* 자신의 출신 국가 소개 시 쓰는 유일한 시제.

예) 저는 독일에서 온 파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오는 파울입니다~~’ 또는
‘~~저는 독일에서 오던 파울입니다~~’라는 문장은 성립하지 않음)

‘오는’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가령 파울이라는 독일인이 있다고 할 때, ‘독일 사람으로 태어난 파울’이란 표현은 맞지만, ‘독일 사람으로 태어나는 파울’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음 (이미 태어났으므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도 같은 맥락.

‘오던’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 ‘예전에 한번씩 오고는 하던’ 또는 ‘계속해서 온’ 일련의 행위를 이르는 말이 됨.
(‘태어나고 하던’으로 대체해 보면 ‘오던’이 왜 이상한지 알 수 있음)

2) 출신 국가가 아닐 때

독일 땅에 몸담고 살고 있는 한 한국인이 서울에 다니러 왔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독일에서 온 ○○○입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때의 의미는 그가 독일 출신이 아니라 독일에 살고 있다는 것. <온>은 그러니까 독일 태생인 독일인, 또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독일에 거주하면서 독일 국민이 된 사람, 또는 그곳에 살기는 하지만 그 나라 국민이 안 된 사람, 모두가 한국 방문 시 쓸 수 있는 표현.
(韓國民이 된 외국인이 있다고 할 때, 가령 그가 러시아 출신이라면, 우리는 그를 ‘한국 국민이 된 러시아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으며, 그는 자기 소개를 ‘러시아에서 온 ○○○입니다’라고 할 수 있음)

㊲ 드러내다/들어내다

한계를 드러내다, 속마음을 드러내다, 모습을 드러내다
본색을 드러내다 등등.

들어내다 (떼어내서 제거, 처분함)

예) 집안 정리를 하면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려고
바깥으로 들어냈다.

예) 의사는 종양 덩어리를 들어내는 수술을 집도했다.

㊳ 빼다/뺐다 (빼앗다의 줄임)

'빼다'의 과거형은 '뺐:다' 예) 뚱뚱해서 살을 뺐다.

'뺏다'의 과거형은 '뺏었다' 예) 일진들은 남의 돈을 뺏었다.
(줄이지 않으면 '빼앗았다')

㊴ 깎다/~~깍다~~

연필을 깎다, 값을 깎다, 머리를 깎다, 잔디를 깎다 등등.

'~~깍다~~'는 없는 단어.

㊵ 매다/메다

넥타이를 매다 (매듭과 관련)

가방을 메다 (멜빵과 관련)

㊶ 드시다/먹으시다

드시다: 누가 무엇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높임.

예) 커피 드시겠어요?

예)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많이 드신다.

먹으시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아님.

예) 더위 먹으셨어요?

('○○를 먹다'라는 관용어적인 표현)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훌륭한 일꾼 이재명을 마음껏 부려 먹으십시오!

('먹다'는 여기서 조동사로 취取한다는 개념)

㊷ 여쭤보다/물어보다

예)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상황.

Person A: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Person B: 네, 물어보세요.

(여기서 만약 B 가 '네, 여쭤보세요'라고 하면 B 가 B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게 됨.
'네, 여쭤보세요'는 마치 '저한테 주세요'를 '저한테 드리세요'라고 하는 격)

㊸ 부인/아내

예) A 와 B 가 덕담을 함.

Person A: 부인께서도 안녕하신지요?

Person B: 네, 제 아내도 잘 있습니다.

(B 가 '네, 제 부인도 잘 있습니다'라고 하면
B 가 B 자신과 자기 아내를 스스로 높이는 게 됨.
'부인'은 남의 아내에 대한 경칭)

㊹ 집다/짚다

집다: (특정한 것을) 집어 올림.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
('집다'와 관련, 집게·쪽집게 등의 명사도 있음)

짚다: (의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갖다 대다'라는 의미.
목발을 짚다, 지팡이를 짚다, 땅 짚고 헤엄치기 등.
('지팡이'의 어원이 '짚다'에서 비롯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또는 '체크하다'라는 뜻.
예) 열이 있는지 이마를 짚어 보았다.
예)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㊺ 혈혈단신 (子子單身): 사자성어로 외로울 혈이 두 번이나 쓰여 외롭고 외로운 홀몸이라는 뜻. (홀몸에서 '~~홀홀단신~~'이라고 쓰는 표기의 오류가 생기는 듯)

㊻ 덥:다/덮다

덥다: ‘춥다’의 반대.

예) 날씨가 몹시 덥다.

(어간의 받침 ‘ㅂ’이 ‘우’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남.

더워, 더웠어요, 더웠습니다, 더운 등)

덮다: 위에 뭔가를 씌움. 이불을 덮다, 보자기로 덮다 등.

(덮습니다, 덮었습니다, 덮어요, 덮었어요, 덮는, 덮은…

받침 ‘ㅍ’이 변하지 않음. 회덮밥, 덮개 등의 명사도 있음)

㊼ 육개장/~~육계장~~ (~~닭을 뜻하는 한자 鷄가 아님~~)

소고기로 만들면 육개장, 닭고기로 만들면 닭개장.

㊽ 원만/완만

예) 진통 끝에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예) 그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친화력이 있고 대체로 긍정적임.

예) 비탈길이 가파르지 않다. (경사가 완만함)

예) 완만하게 활처럼 휘어진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㊾ 같은 철자이나 발음이 **경음화** 되는 경우

용:**건**만 간단히	[용:**껀**]
용건 (사람 이름)	[용건]
K 콘텐츠의 인**기** 비결	[잉**끼**]
인기 (사람 이름)	[잉기]
태**권**도	[태**꿘**도]
태권 (사람 이름)	[태권]
인**권** 변호사	[잉**꿘** 변호사]
인권 (사람 이름)	[잉권]
영**자** 신문	[영**짜** 신문]
영자 (사람 이름)	[영자]
중 2:**병**	[중이:**뼝**]
꾀병	[꾀병]
대:**가** (代價)	[대:**까**]
대:가 (大家)	[대:가]
경**기** (驚氣)를 일으키다	[경**끼**를 이르키다]
경기 (景氣)가 좋지 않다	[경기가 조치 안타]

등.

㊿ 현실음을 고려한 <의> 발음

첫 글자일 때: 예) 의 사 [의 사]
예) 의 문 [의 문]
예) 의 지 [의 지]

첫 글자가 아닐 때: 예) 정:의 [정:이]
예) 주:의 [주:이]
예) 문:의 [무:니]
예) 성의가 없:다 [성이가 업:따]

소유격일 때: 예) 사랑의 불시착 [사랑에 불시착]
예) 나의 아저씨 [나에 아저씨]
예)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이에 의이]

철자 '의'가 아닌 모음 'ㅡㅣ'에 대해 덧붙이면

예) 하늬바람 [하니바람]
예) 씌우다 [씨우다]
예) 희망 [히망]
예) 희생양 [히생양]

늬·씌·희처럼 <ㄴ · ㅆ · ㅎ>과 만났을 때 (첫 글자든 첫 글자가 아니든)
'ㅡㅣ'는 'ㅣ'로 발음된다.

㊺ 종성 <ㅅ>의 발음

註 1 연음이 되는 경우: 예) 옷이 [오시]
예) 맛있다 [마시따]

註 2 대표음이 되는 경우: 예) 윗옷 [위돋] (윋옷 → 위돋)
예) 맛없다 [마덥따] (맏없다 → 마덥따)

註 3 ㄴ 첨가가 되는 경우: 예) 깻잎 [깬닙] (깯닢 → 깬닙)
예) 나뭇잎 [나문닙] (나묻닢 → 나문닙)
('잎'은 예전에 '닢'이라고 했음)

註 1 연음 (連音). Liaison.

註 2 대표음 (代表音). <ㄱ · ㅂ · ㄷ>

- 받침 <ㄱ · ㄲ · ㅋ>이 <ㄱ>으로 소리남.
  예) 복[복] · 밖[박] · 부엌[부억]

- 받침 <ㅂ · ㅍ>이 <ㅂ>으로 소리남.
  예) 답[답] · 앞[압]

- 받침 <ㄷ · ㅅ · ㅆ · ㅈ · ㅊ · ㅌ>이 <ㄷ>으로 소리남.
  예) 받[받] · 옷[옫] · 있[읻] · 찾[찯] · 꽃[꼳] · 밭[받]

註 3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ㄴ 첨가' 현상은 일률적이지 않아서 받침 있는 글자 다음 '이·야·여·요·유'가 오는 음운 환경이라고 해도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예: 나들이 [나드리] · 나날이 [나나리] · 일요일 [이료일] 등), 또 '북유럽 [붕뉴럽] [부규럽]'처럼 두 발음이 다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북유럽'과 동일한 음운 환경이지만, '6 유로 (육 유로)' 같은 경우는 [~~유규로~~]라고 하지 않고 '육'과 '유로' 사이에 'ㄴ 첨가' 적용이 된 [융뉴로]로 발음하는 현실도 보게 됨.

받침 있는 앞 단어 다음이 '이'일 때: 'ㄴ 첨가'가 되어 '이'가 '니'로. 예) 꽃-잎 [꼳닙→꼰닙]
받침 있는 앞 단어 다음이 '야'일 때: 'ㄴ 첨가'가 되어 '야'가 '냐'로. 예) 내복-약 [내봉냑]
받침 있는 앞 단어 다음이 '여'일 때: 'ㄴ 첨가'가 되어 '여'가 '녀'로. 예) 색-연필 [생년필]
받침 있는 앞 단어 다음이 '요'일 때: 'ㄴ 첨가'가 되어 '요'가 '뇨'로. 예) 담-요 [담:뇨]
받침 있는 앞 단어 다음이 '유'일 때: 'ㄴ 첨가'가 되어 '유'가 '뉴'로. 예) 식용-유 [시굥뉴]

'ㄴ 첨가'가 일어나면 위와 같이 되지만, 받침 있는 글자 다음 '이'가 와도 'ㄴ 첨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령 '목걸이 [목꺼리]' 같은 경우를 보면 '나들+이 · 나날+이'와 달리 경계가 '목+걸이'이므로 'ㄴ 첨가'가 일어나는 환경이 아니어서임. (~~'목걸+이'~~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 '옷+걸이 · 귀+걸이' 등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들이·나날이·일요일' 등은 'ㄴ 첨가' 음운 환경인데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이고, '목걸이'는 앞 단어인 '목' 다음 오는 첫 글자가 '걸'이므로 '이·야·여·요·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나들이'와 '목걸이'를 비교해 보면 '이'로 끝나는 것이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나들이'는 파생어, '목걸이'는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나들이'는 '나들다'의 어근이 '나들'이므로 '나들+이 (접미사)'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목걸이'는 '목걸다'가 아닌 '목에 걸다'라고 해야 의미가 통하므로 '목걸+이'로 설명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겠음. '목걸다'라는 동사가 없기에 명사 '목'과 명사 '걸이'의 합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걸이'는 '거는 (기능을 하는) 도구 내지 사물'이라는 의미로 굳어져 이미 명사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음.

'ㄴ 첨가'라는 음운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경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령 '식용유'라는 합성어에서 보듯 [싱뇽뉴]가 아닌 [시굥뉴]로 발음하는 것은 '식+용유'가 아닌 '식용+유'로 나누어지기 때문인데, 명사 '식용' + '유(油)'로 나누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서임. (경계가 '식' + '용유'로 될 수 없는 이유는 '식'은 접두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며, '용유'라는 명사 또한 있지 않으므로)

'깻잎 · 나뭇잎' 등은 '잎'의 고어 (古語)가 '닢'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받침 있는 글자 다음 '이'가 오고 '깻+잎' · '나뭇+잎'으로 나뉘기에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임.
꽃잎 [꼰닙] · 솔잎 [솔립] · 단풍잎 [단풍닙] · 풀잎 [풀립] · 떡잎 [떵닙] · 호박잎 [호방닙] 등, '잎'으로 끝나는 단어는 예외없이 'ㄴ'이 첨가되고, '솔잎'과 '풀잎'은 'ㄴ 첨가' 후 다시 *유음화가 일어나서 '닙'이 '립'으로 됨.

* 유음화 (流音化): '솔'의 'ㄹ' 영향을 받아 '닙'의 'ㄴ'이 흐름 소리 'ㄹ'로 됨으로써 앞뒤 글자를 연계해서 'ㄹ+ㄹ'로 발음. [솔닙]이 [솔립]으로, [풀닙]이 [풀립]으로 발음하기가 쉬워짐.
'솔잎'과 '풀잎'은 'ㄴ 첨가' 후 이어져서 유음화가 되었지만, 단어 자체로서 'ㄹ+ㄴ'의 조합인 것들도 있음. 그 예로 불놀이 [불로리] · 줄넘기 [줄럼끼] · 설날 [설랄] · 물난리 [물랄리] · 불나비 [불라비] · 1 년(일년) [일련] · 7 년(칠년) [칠련] · 8 년(팔년) [팔련] · 열넷 [열렌] · 찰나 [찰라] 등을 들 수 있음.